

(No Subject)

From: skoong.jlt (skoong.jlt@gmail.com)

To: su_koong@yahoo.com

Date: Saturday, July 8, 2023 at 11:04 AM MST

#244. 히스기야왕의 기도.

열왕기하 19장 14-37절.

오늘은 열왕기하에 나와있는 히스기야왕의 기도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한다.

앗수르왕 산헤립이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왕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괴롭히며 그들이 믿고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모욕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히스기야왕이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모욕적인 사건을 고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시심을 알 수 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이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심을 확신함을 본다.

앗수르왕 산헤립의 편지내용을 보면 교만하기 그지없어서 자기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신들을 부수고 파괴한 자랑을 늘어놓으며 여호와 하나님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모욕하고 있음을 본다.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이며 도대체 무엇을 대적하고 누구와 싸우려는지 분간도 못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이 파괴한 신들은 참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들일 뿐이라고 고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어느 신이 참 신인지의 싸움이 됐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응답으로 앗수르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리신 판결을 전하여 주신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훼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뻗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산헤립이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는 무용담과 이룬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또한 고통당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나.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결국 산헤립이 자랑하던 앗수르 군대는 여호와와의 사자가 치심으로 그 밤에 군사 십 팔만 오천이 다 송장이 되었고 산헤립은 돌아가서 니스웨에 거하더니 그의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에 바로 그자리에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칼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건을 보며 교만하다 못해 자기도 잘 모르는 신에 대하여까지 교만하고 업수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보게 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있으며 그 능력의 근원과 일의 성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이 치시니 인생의 모든 힘과 자량이 다 한낱 헛된 자량이요 그 최후는 자신이 경배하나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거짓 신 앞에서 배신자의 칼에 맞아 거꾸러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보여주신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도 유다 백성들과 왕의 죄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신명기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앗수르 왕을 두려워 함이 더 커서 스스로 굴복하여 이러한 모욕까지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으며 만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라면 이러한 침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신명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죄의 문제요 불신의 문제임을 묵상을 통해 배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음을 알 수 있다.

빌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있으며 뉘우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우리는 완전치 않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나 그것을 양심이나 말씀이나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뉘우치는가 않는가에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것을 고발당할 때 곧바로 성령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피앞에 회개하는가 아니면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그 때를 넘기는가에 따라 사울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다.

잘못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이 때가 바로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이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때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묵상을 통해 교만한 자는 멸망당함을 배우고 비록 실수가 많으나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 꾀로 해결하려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유일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소상히 거짓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오늘 하루도 항시 죄와 싸우며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자.

6/7/2023. 12:30. 수요일 뉴튼집 다락방에서.